

불안한 노후...주택연금 관심 높다

60세 이상 집 담보로 매월 연금
 광주·전남 2월까지 4192억 지급
 다음달 '내집연금 3종' 출시
 고연령·취약계층 혜택 강화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께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상품 3종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총 773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에 15건으로 시작한 차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한해 125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3년 146건, 2014년 130건, 2015년 156건을 기록하며 매년 신규가입건수가 늘었다. 광주·전남의 주택연금 연도별 공급액은 2007년 42억원이었다. 이후 2012년 649억원으로 상승했고, 2015년에는 972억원이 공급됐다. 올 2월 말까지는 총 4192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신규가입은 명절 이후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사의 경우도 지난 설 명절 이후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된 문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며 20건 이상이 신규 접수됐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평생저축, 평생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라며 "고령화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가입건수는 전국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월 평균 수령액은 100만원대로 수도권



평균 110만원대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률이 미비한 광주·전남 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늘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균 집값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고령의 주택소유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4월 출시 예정인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연령대별 맞춤형 주택연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이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활성화 ▲40~50대 주택연금 가입 시 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제공 ▲취약계층에 한해 연금 지급액을 높이는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행 가입 한도인 9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 기준 또한 15억원까지 확대토록 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연금만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을 통해 자금을 실현하는 자산으로 보는 기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 관해 가지고 있다가 팔겠다는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받는 연금을 수령하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1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46.12 (-11.75)
- ↓ 금리 (국고채 3년) 1.48% (-0.02)
- ↑ 코스닥 674.32 (+2.11)
- ↑ 환율 (USD) 1206.70원 (+5.30)

행남자기, 목포 대양산단에 30억 투자



(주)행남자기와 목포시는 8일 목포시청에서 대양산단 분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목포시 제공)

투자협력 MOU...5,221㎡ 분양받아 사업 다각화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주)행남자기가 목포시와 8일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행남자기는 대양산단 5221㎡(약 1579평) 부지를 분양받아 오는 15일 산단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해 4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홍목 목포시장은 "향토기업인 행남자기가 목포를 떠나지 않고 존속하면서 대양산단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차례 협의해 결실을 맺었다"면서 "대양산단 투자유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남자기는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목

포시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고용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주)행남자기는 지난 1942년 목포에서 고(故)김정훈 창업주와 고(故)김준형 명예회장이 창업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작년 11월 11일 주식회사 터미디에 매각했다.

한편 (주)행남자기 목포 공장은 석현동에 있었으나 도시계획변경으로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해 전 공장을 경기도 여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출감소와 적자에도 불구하고 향토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유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 목포시의 요청에 따라 일부 공장을 연산동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매장 위치 변경·판촉비 전가...백화점 '甲질' 제동

공정위, 백화점-입점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멋대로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찾은 불공정 약관은 그 유형만 35개나 됐다. 그만큼 계약서가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백화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었다는 뜻이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들은 입점업체의 매장 위

치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됐다.

계절별 상품 재구성이나 입점업체 요청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매장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단 순히 고객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됐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만이 3차례 이상 접수됐고,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만 백화점은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은 또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판촉 행사에 입점업체 종업원 파견

을 강요할 수 없다.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판촉비를 분담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가 내는 판촉비는 50%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경영난 등으로 임대료를 밀리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연이자도 공정위 고시율인 연 15.5%를 넘으면 안 된다.

백화점은 중대 과실에 따른 화재, 도난 때만 피해 보상 등 책임을 지는 조항은 백화점 측의 경미한 과실이나 건물의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 때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분야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고쳐나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국토사무소 예산 61% 상반기 집행

익산국토청 "지역경제 활성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황현성)는 8일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올해 사업비 예산 총 695억원 중 61%인 42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하천정비(86억원), 시설안전 개선(52억원), 국도유지보수(426억원), 시설개량(54억원), 자전거도로(14억원),

위험도로 개선(63억원) 등이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4월까지 공사과 용역 사업을 지역제한 경쟁입찰 원칙으로 발주하고 상반기에 선금 지급, 기성 등을 활용해 재정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현성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매주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며 "부도징수가 있는 현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유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엔드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제주아일랜드 사당로 1969-24 (9월 25~31)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한라산등반 최적지 소문의 권리 알리바이먼트 렌트카 90% 할인 단체수요 시설안내	핀란드풍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스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캐피탈cc, 링크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단,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 영실코스 15분, 삼관악 자랑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사(단, 차량이동시간임)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주중 30%, 주말 20% 할인(평일, 성수기, 혼성수기, 연휴기간 제외) 벨라 15평 동나무원룸 1박 + kb or YF소녀타 24시간 78,900원 (비수기 주중 기준)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석식가능
--	---